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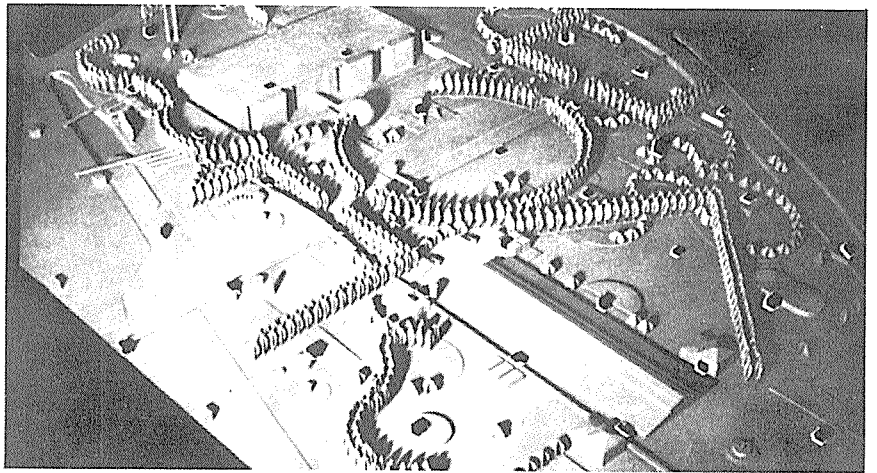
해체주의(I)

그 배경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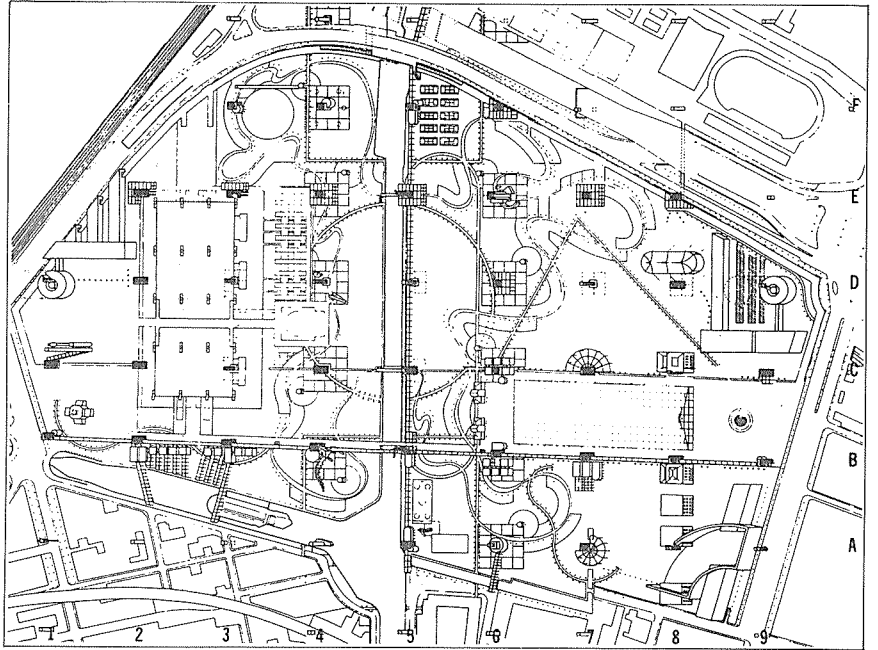
해체주의

Deconstruction

해체주의
Deconstruction



①



②

1. 자크 데리다는 누구인가?

데리다는 1930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파리의 École Normale Supérieure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대철학이론에 놀라운 영향을 준 사상은 1967년부터, 6권의 저서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데리다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의 책을 미국에 번역한 바바라 존슨은 “서구 형이상학의 비판”으로 소개하고 있다. 용어 ‘디컨스트럭션’으로 잘 알려진, 자크 데리다는 ‘서구의 형이상학’의 비평을 수정하는데 있어, 니체와 하이데거를 따르고 있다. 니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가치평가의 전환”을 주장하여, 시대에 대해 반항적인 주장을 펼칠 것을 일컫는 이야기이다. 비록 니체의 주장이—‘초인’과 ‘영원회귀’를 주장한 개념은—그때나 지금이나, 비합리주의적인 주장이고 과대망상적인 것으로 비쳐, 일찌기 히틀러와 그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판 받지만, “모든 가치평가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 해체의 이론적, 실천적 흔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니체의 철학의 가치전환이 요청하는 것은 근원으로 회귀하여, 이성으로서 중요한 은유들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데리다는 ‘서구형이상학’이 서구의 철학전통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사상과 언어까지를 의미하는 형이상학을 대상으로 한다. 데리다는 말하기를 서구의 사상은 二分法(Dichotomies) 또는 兩極性(Polarities)의 용어로서, 구조화되어 왔다고 보았다. 예를들어, 存在와 無, 現存과 不在, 진실과 과오, 독창성과 차이, 精神과 物質, 남성과 여성, 생과 사, 자연과 문화, 말과 글 등이다.”

이와 다르게, 동양이나 한국의 전통적 사고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서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김용옥교수가 ‘여자란 무엇인가’에서 논하고 있다. 즉 서양과 다른 이분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동양철학에서 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논할 주제가 아니므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할 기회와 능력이 마련되기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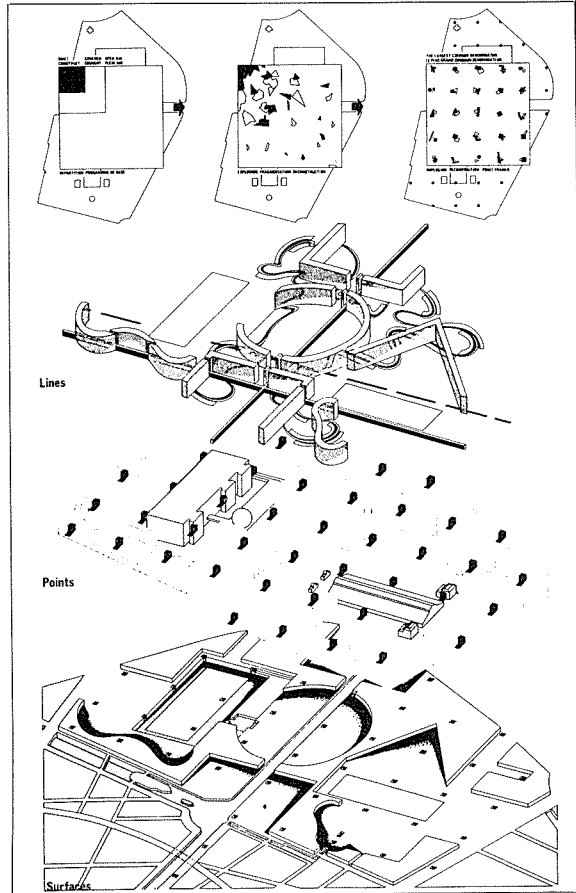
어쨌든, 서구의 이분법에서 서로 대립되는 이 개념은

成仁洙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 ① 베르나르 추미-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 라 빌레트 모형
- ② 베르나르 추미-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 라 빌레트 배치도



3

독립적이고 동등한 실체가, 아니다. 비교되는 모든 두 개념에서 두번째 용어들은 첫째 개념에 대해 상당히 격하되어 있는 부정적, 잘못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부재란 있다는 것의 결함이고, 약이란 선에서 떨어진 것이며, 실수란 진실의 변형된 모습 등으로 해석한다. 다른 말로, 두쌍의 용어들은 그 의미가 단순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용어에 '우선권'(Priority)을 주는, 동시에 말의 일시적이고 질적인 감각을 부여하는 위계질서에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계에 의한, 대립개념이 하는 기능은 거리, 차이, 유포, 그리고 유예에 대해, 통일성, 독자성, 긴급성, 그리고 일시적이며 공간적인 존재성의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存在'라는 질문의 대답을 추구하는데 있어, 서양철학은 정말로 항상 現存(Presense)을 存在(Being)로 생각하여 왔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 인간이 영원한 지구에 대해 영속적으로 존재 할 것처럼 생각한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다. 모든 가치판단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도 잘못이란 점이다.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데리다의 비평은 글(Written Word)보다 말(Spoken Word)에 더욱 특권을 준 것에

촉점을 맞추고 있다. 글보다 말에 더욱 가치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든 같은 시기에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말하는 사람, 글, 듣는 사람 사이에 시간적이나 공간적 거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듣는 것과 동시에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³⁾

데리다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건축가들은 그로부터 무엇을 빌어 사용하는가? 데리다의 문학비평을 깊이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취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젊은 영문학자는 쉽게 말해 디컨스트럭션은 글에 드러나지 않는 底意를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2. 모더니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해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더니즘(Modernism)은 흔히 제1차 세계대전(1914~18)이후의 문학과 예술에서 개념, 감각, 형식, 그리고 문체상의 가장 뚜렷한 변화로 간주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개념은 다소 모호해서 유럽에서는 20세기 문학 전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1차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을 기점으로 하기도 한다. 폭넓게 사용되는 모더니즘(Modernism)과, 시간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모더니즘'(Modernism)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대구분 등에서 모더니즘은 2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가기도 한다. 여기서의 의미는 후자의 개념이다.

모더니즘으로 의미되는 특징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서구문화와 예술의 전통적인 기반으로부터의 의도적이면서 급진적인 탈피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모더니즘'의 지적 선구자들은 그때까지 사회조직, 종교, 도덕 그리고 인간의 자아개념에 기반을 제공해주던 확실성에 의혹을 품게 된다.

전통적인 문학형식과 주제에 대한 모더니즘들의 반발은 제1차 세계대전의 대변혁이 서구문명과 문화의 영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이후에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전부터 전해 온 표현상의 규칙들을 파괴하는 입체파, 미래파, 추상표현파 등의 모더니스트들이 여러 예술분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때 뚜렷한 현상중의 하나는 전위(아방가르드

Avant-garde)의 현상이었다. 아방가르드는 ‘개혁을 기도하는 자의식이 강한 예술가나 작가들의 소집단’을 말한다. 기존의 관습과 예법들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은 항상 새로운 예술적 형식과 스타일을 창조하고, 그때까지 방치되고 때로 금지되기까지 했던 주제들의 도입을 시도한다. 그들의 목적은 기존의 관습에 젖어있는 독자의 감각에 충격을 주면서, 시민문화의 틀에 도전하는 것이다.¹⁾

모더니즘은 권위적이고 실험적인 반면, 안정된 형식을 이루지도 못하기도 한다. 이점은 건축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 1920~30년대의 권위적인 건축운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단편적으로 합리주의 건축에 영향을 주며, 합리주의 건축으로 흡수되어 갔다.

입체파운동, 이탈리아의 미래파운동, 소련의 구성주의 건축, 독일의 환상주의 건축, 표현주의 건축 등은 변혁을 시작하긴 했지만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약화되었다. 표현주의 건축은 건축가의 자유로운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회피하고 개인의 사고영역에 파묻힌 상태에서 표현하는 두 흐름이 있게 된다. 합리적 건축이란 기본적으로 서구 합리주의의 사고를 배경으로 한 건축이다.

자하 하디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세기에 들어 테크놀로지의 승리, 그리고 점점 증진하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생활방식이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냈다. 건축가들은 반성과 연구, 상상,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모더니티(Modernity)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건축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거의 범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단 한가지의 길, 즉 초기 모더니스트들의 실험에 의해 열린 길을 가는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이 굳어진다. 실은 초기 모더니스트들의 의도는 유산되고, 그 계획은 현실에서 실험되지 않았다.”²⁾

자하 하디드는 아방가르드로서의 변혁을 시도한 모더니스트들의 노력들이 정당하게 실현되고, 확인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 포스트 모더니즘론

문학에서 모더니즘이 외부의 권위있는 질서체계에 대한 신념의 상실과 이에 따르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그러한 점이 담겨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 어디서나 두루 쓰이는 명칭이라기 보다 英美 문학비평계에 치우친, 어떤 면에서는 영미문단의 속성과 가까운 명칭이다. 이후, 모더니즘의

여러 유파도 존재하며, 동시에 모더니즘을 계승하면서 극복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모더니즘 자체의 새로운 단계에 해당한다는 네오모더니즘(Neo-Modernism) 등이 나타나 혼란스러워졌다.³⁾

용어 ‘포스트 모던’은 토인비가 Post-Modern Period라고 사용했고, 문학에서 쏜타그가 사용했으며(1966년), 이합 하싼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창했고, 커모드가 네오모더니즘 개념을 확립했다.⁴⁾ 1982년 10월, 한국영어영문학회 초청으로 한국에 온 이집트출신의 미국문학평론가

이합 하싼(Ihab Hassan)은, 모더니즘 :문학의 본질과 문학사의 성격에 대해 일정한 고정관념을 전제한 권위주의적, 신교전주의적 움직임을 지칭했고, 포스트모더니즘 :어떠한 ‘중심’도 인정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학이요, 예술임을 강조한다.

- 이에 관한 논점으로,
- ① 텍스트에 종전의 분류를 부정하고,
 - ② ‘문학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 ③ 신비평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한다.
 - ④ 일원적 비평론을 벗어나 다원론 내지 비평적 상대주의를 표방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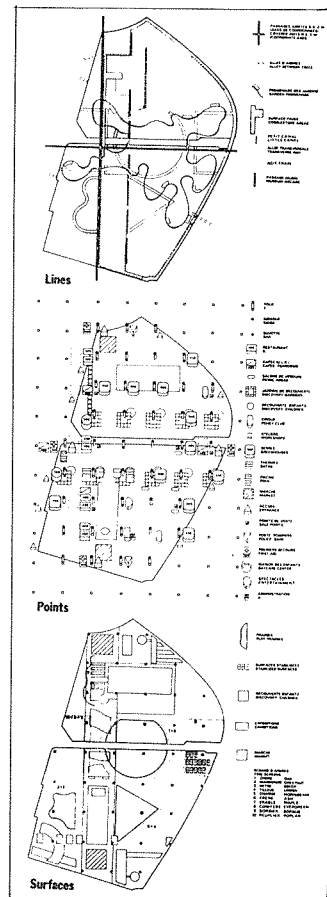
여기서 신비평(New Criticism)이란 문학을 자율적 산물로 보는 객관적 비평이라 할 수 있다. 즉, 작품을

모더니즘으로 의미되는 특징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서구문화와 예술의 전통적인 기판으로부터의 의도적이면서 급진적인 탈피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모더니즘의 지적 선구자들은 그때까지 사회조직, 종교, 도덕 그리고 인간의 자아개념에 기반을 제공해주던 확실성에 의혹을 품게 된다.

시인, 독자, 주위세계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작품을 복잡성, 일관성, 균형, 총체성 및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과 같은 ‘내재적’기준에 의해 분석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1920년 이후의 많은 중요한 비평가들의 접근방법이며, 문학에서의 신비평가, 시카고학과, 유럽 형식주의자, 프랑스 구조주의자(초기의)들이 이런 노선을 취하고 있다.⁶⁾

한국의 영문학계에서, 이러한 신비평이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서양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한 배경을 제외하는 신비평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⁷⁾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영미 평론계에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신비평’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을 한



③ 베르나르 추미-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 라 빌레트 개념도
 ④ 베르나르 추미-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 라 빌레트 개념도

것이였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계열의 방법은 수정주의비평, 해석학적 비평, 철학적 비평, 창조적 비평등이 있다."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해 효과적인 변혁을 꾀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백낙청교수는 문학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한 변형으로 보고 있다.

건축계에서는 실제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찰스詹스는 자신은 이합 하산과 그밖의 저자들의 글을 알았음에도, 이 용어들의 문학상의 의미를 알면서도, 건축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초판에는 없던 내용을 뒤에 추가로 수록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전위적 극단주의의 종말과 전통으로의 부분적 복귀, 그리고 대중과의 대화에서의 중심적 역할—즉, 건축은 분명한 대중적 예술임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詹스는 '2중 코드화'라는 개념으로 건축을 정의했고, 원초적인 2중성은 소수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와의 마찰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즉, 포스트모던 건축은 2중코드화(모던 반과 전통 반이라는)를 통해 다수의 대중과 소수의 보통 건축가와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건축으로 정의했다.

모더니즘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다는, 찰스詹스의 개념은 합리주의나 국제주의건축으로 치우친 평가를 받던 현대건축의 여러 양상을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한 개념일지 모른다. 포스트모던을 지칭하는 용어 "중심의 상실"에서의 중심은 과연 무엇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아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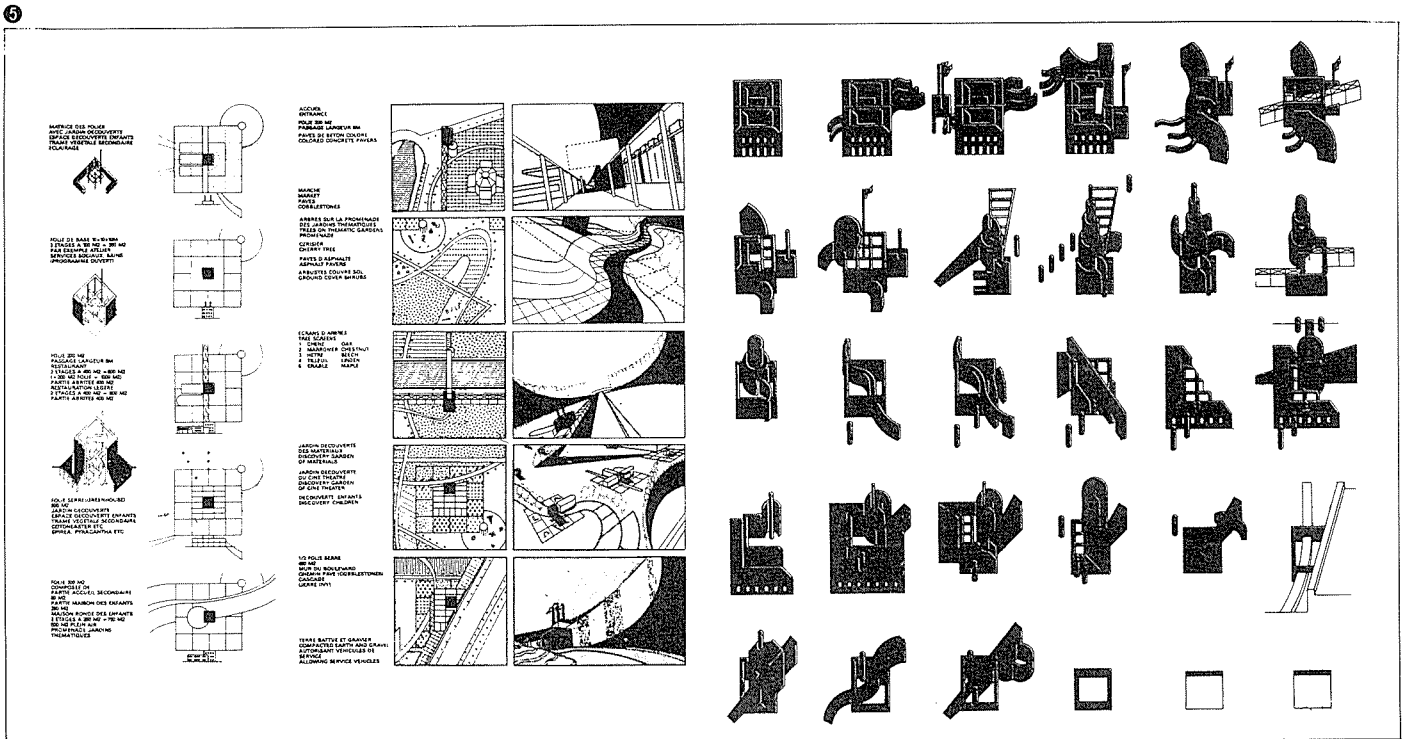
서양건축의 이론이나 사상의 중심내용—고전적 건축의 원리—을 지칭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적 위치에 선 적은 언제였는지?

4. 탈구조주의—해체주의

구조주의에서의 구조는 인제나, 하나의 중심, 고정된 원리, 의미의 위계질서와 확고한 토대를 가정하는데, 탈구조주의는 혼란스러웠던 1966년의 프랑스에서, 사회참여에 좌절한 실천적 사회주의학자들이 사회변혁의 한 방법으로서 언어연구를 통한 그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에 대한 회의'가 인간사상의 기초형식인 언어를 회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애매모호한 언어를 해체하게 되었다. 소쉬르의 기호이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호는 두개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 즉, '표시하는 것'과 '표시되는 것'의 결합으로 보았다.

記表	시니피양	signifier	能記	記號表現	표시하는 것	랑그	言語
記意	시니피에	signified	所記	記號內容	표시되는 것	파롤	發話

'표시하는 것'과 '표시되는 것'의 관계에 따라 세 유형의 기호가 있다. 지표(Index), 상(像, Icon), 상징(Symbol)등이다. 기호학의 2인자로 이어 받은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되었다.」 「꿈은 기표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소쉬르가 말했듯이 어떤



기표라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체계내에 들어가야 된다. 이 網이야 말로 언어의 필수조건이다.¹⁵⁾ 소쉬르는 언어의 의미는 단지 구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모든 기호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구별의 조직망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¹⁶⁾ 소쉬르의 ‘랑그’는 의미의 한계지어진 구조를 뜻한다.

구조주의가 기호를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면, 종종 ‘탈구조주의’로 알려져 있는 사고방식은 더 나아가 시니피앙을 시니피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즉, 의미가 기호 안에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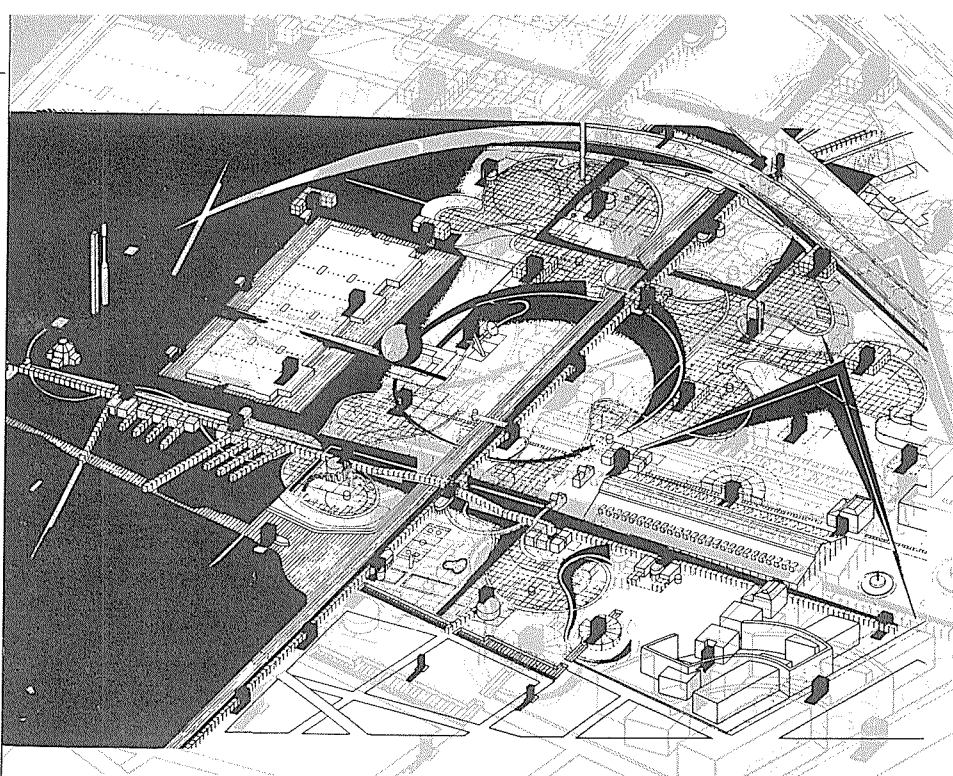
데리다는 순수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그가 지닌 생각을 종이 위에 적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 했다. 왜냐 하면 말하는 행위에 있어서 데리다는 글 쓸 때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와 ‘일치하는’듯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말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식에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목소리는 그말에 밀접한 자연발생적인 매체가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 쓸 때에는 머리속의 의미는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 데리다는 내 생각을 인쇄라는 비인격적인 매체에 맡기게 되며, 인쇄된 텍스트는 지속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를 지닌 까닭에 예측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널리 보여지고, 알려지고 인용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믿었다.

서양철학이 ‘육성’에 중심을 두고, 글을 깊이 회의하는 ‘음성중심적’(Phonocentric)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로고스중심적’(Logocentric)이었다. 즉 데리다는 理性中心主義가 세계를 장악하고 글쓰기, 형이상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의 형태를 지배했다고 지적한다. ‘글쓰기’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글쓰기는 언어를 초월하고, 그것을 앞서며, 그것을 함축한다.

우리에겐 낯익은 한 쌍, 「記意/記表」를 뒤집으면서, 데리다는 새로운 개념을 산출한다. 소쉬르의 기호의 자리에 ‘흔적’을 배치하는 것이다. ‘신비하며 감지할 수 없는 흔적’을 형성시킨다.¹⁷⁾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상, 언어, 강함의 토대가 되는 어떤 궁극적인 ‘말씀’·존재·본질·진리 또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신, 이데아, 세계정신, 자아, 실체, 물질 등의 개념이다. 즉, 인간의 사고의 밑바탕을 이루려고 하는 단어들이다. 우리사회에서 자유, 가정, 민주주의, 독립, 권위 등이 가진 위치를 생각해 보면, 때로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것의 ‘기원’, 만물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의미가 가능하려면 다른 기호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¹⁸⁾

해체주의는 고전적 구조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⑥ “이원적 대립관계들이 이데올로기의 특유한 사유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¹⁹⁾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허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아와 비자아, 진리와 허위, 의미와 무의미, 이성과 광기, 주변과 중심, 표면과 심층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긋는다.

이에 데리다는 모든 위계질서를 만들수 있는 결점없는 기초-제1원리 또는 반박할 수 없는 토대—에 의존하는 모든 사상체계를 ‘형이상학’이라 이름 붙인다. 말을 하여 형이상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틀에 의해서만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글쓰기를 격하시키고 말에 의미를 두어온 인간의 理性은 합리적인 사고를 위장하여 이미 형성된 二元的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글에 담겨 있지만, 흔히 무시되어 온 흔적을 확인하고 언어개념간의 차이를 밝혀, 二元論의 틀에 묻힌 생각을 구하자는 것이 데리다의 요청이다.

5. 데카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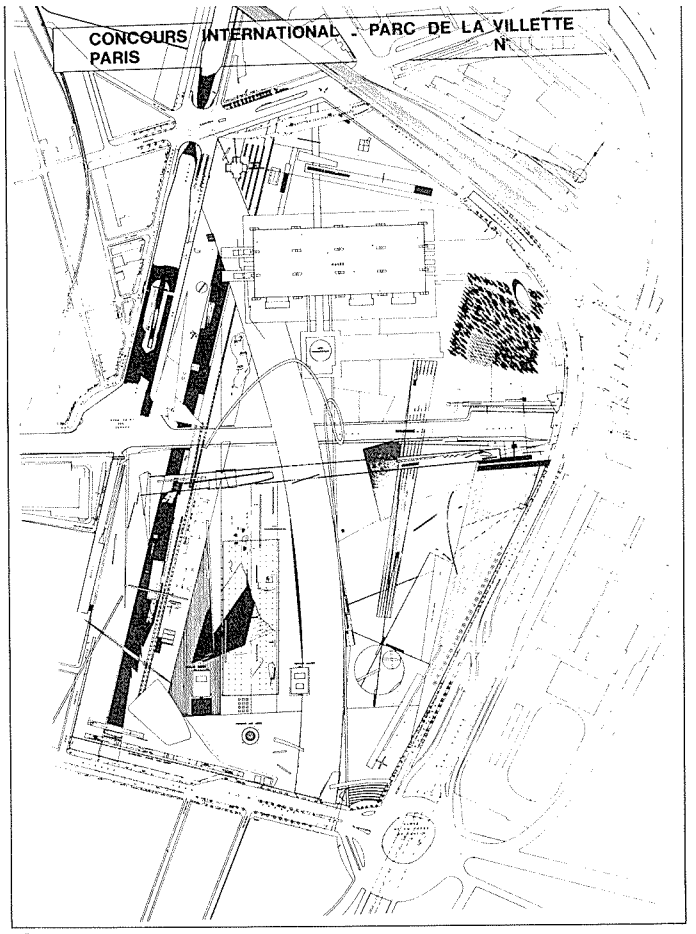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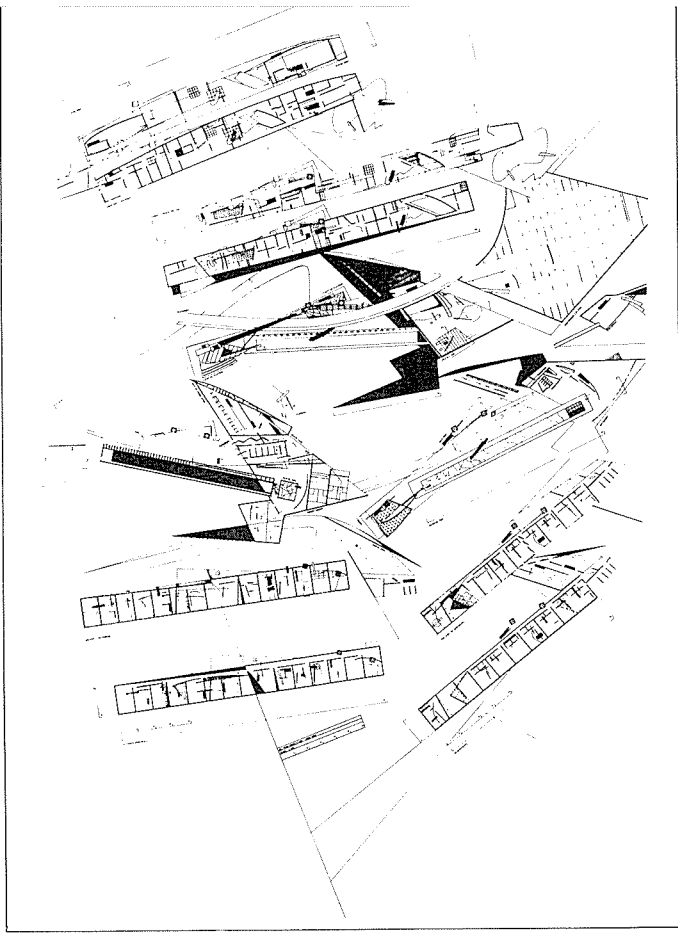
주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데카르트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건축과 철학—합리주의의 근원에 대한 논의때문이다. 철학사에서는 건축의 두 측면에 관심이 있었다고 앤드류 벤자민은 말한다.

첫째는, 예를 들어 헤겔의 미학에서와 같이, 미적 형태로서 건축을 말하는 철학으로서나, 또는 예를 들어 하이데거가 그리이스 신전을 예술작품의 기원에서 논하듯이, 미학 또는 예술의 일반적 토의에서 건축사례를 전개하는 것이며,

둘째는, 건축적 형태의 現在(Presense) (예를 들어 칸트의 건축술)이나 철학적 논리의 구성이나 발전을 건축에 비교하는 건축적 은유로서 다루어 왔다.

건축에 관한 데리다의 저작을 구분해 다룰 수 있게 특수한 논의범위를 해체하기 위하여, 벤자민은

⑤ 베르나르 추미-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 라 빌레트,
⑥ 그리드에 따라 설치된 공원 편의시설들의 형태들



7

8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의 ‘방법서설’ 2장을 예로 들고 있다. 데카르트가 만든 유명한 건축적 은유이다.⁸⁰⁾

1637년, 아직 30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 군대에서 돌아오는 귀로에서, 겨울에 접어드는 때에, 독일 어느 촌락에 머물게 된 데카르트는 난로가 있는 방에 오로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는 말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말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 절대고독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최초의 것중에 하나는 많은 부분에서 조립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작품에는, 대체로 단 한사람이 완성시킨 작품에 있어서만큼의 완전성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가지 방면에서 잘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를테면, 단 한사람의 건축가가 설계하고 완성한 건물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옛성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건물보다도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것이 보통이다.

마찬가지로 또 처음에는 성터에 불과했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커다란 도시로 된 옛도시는 한사람의 기사가 넓은 들판에서 생각나는대로 설계해서 만든 규칙바른 도시에 비교한다면 대개는 전체의 균형이 잡혀있지 못하고, 과연 그 중의 건물을 하나하나 별도로 본다면 새로운 도시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혹은 그 이상의 기술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건물들이 여기에는 큰것이, 저기에는 작은 것이 고르지 못한 식으로 즐비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때문에 가로가 꼬불꼬불 높고 낮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이 고르지 못한 열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인 것 보다는 오히려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래도 개인의 건물을 도시전체의 미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 관리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타인의 작품에 손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잘된 것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책에 의한 학문, 적어도 그의 추리가 蓋然的인 것에 불과 하고 아무런 논증도 갖지 않는 학문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조금씩 짜여지고 펼쳐 온 것이기 때문에 양식있는 한 사람이 목전에 나타난 사건에 관해서 타고난 천성으로 이를 수 있는 단순한 추리만큼은,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없다. 라고…….”⁸¹⁾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쓴 목적은, 理性을 잘 이끌어서, 여러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위에 인용한 부분은 6부중 제2부의 앞부분으로 건축은 단지 예로 들기 위해서 거론하고 있으나, 철학자 데카르트의 건축에 관한 관찰은 놀라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같은 것은 새로 짓기 위해,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도시를 모두 부술 수는 없다고 믿는 데카르트는,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의견을 제거하고 다시 理性의 기준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과 데카르트는 결론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을 ‘방법론적 회의론’을 통해 내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목적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총괄적이고 통일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철학체계—물론 그것은 교부철학이었지만—를 근원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로 부터 自我, 나를 발견한 인간은 合理性을 토대로 지금의 인간조건을 형성해 왔다. 데리다는 이러한 합리주의에 의한 형이상학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

6. 건축과 해체주의는 무엇인가?

해체주의가 건축과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1988년 3월, Tate Gallery와 Academy Group의 공동기획으로 열린 제1회 “디컨스트럭션”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시각예술에서의 디컨스트럭션을 검토하고, 잡지 A.D. 특집으로 테마가 설정되었다.

프랑스철학자 데리다에 의해 이론화된 ‘디컨스트럭션’은 텍스트의 ‘의미’가 그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독서의 방법을 그려, 어떤 종류의 고정된 해석도 파헤치기 위해 문학평론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텍스트들 뿐만아니라 시각예술이나 건축에서도 적용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노리스”는 자크 데리다와 특별대담 녹화테이프를, 강당에 모인 청중에게 방영하였고, 토론자들은 건축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오후에는 이의 철학적 배경과 순수예술 및 조각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토론참가자와 청중간의 토론이 뒤이어 있었다. 대부분 디컨스트럭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논쟁을 통해 지금의 건축의 여러측면과 논쟁은 6월에 뉴욕의 MOMA(Museum of Modern Art)에서 열린 “해체주의자의 건축”이라는 주요전시회에서의 테마가 본격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였다.

필립 존슨과 마크 위글리가 기획한, 이 전시회에는 선정된 7명의 건축가의 작품이 선보였지만, 보여진대로, 7건축가는 기획자들이 분석한 해체주의자들의 경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체주의’가 운동(Movement)인가? 해체주의는 모던에 속하는가? 이 철학적 개념은 건축의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든 분야에서 발견 될 수 있다. 잡지 A.D.의 주제를 잡는데 도움을 준 찰스 쟁스는 해체론자의 경향을 개관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크나 큰 문제중의 하나는 용어 ‘디컨스트럭션’ 자체의 건축분야의 형이상학적 확대해석으로 부터 발생하였다.

Construction/Deconstruction, Structuralism/Post-Structuralism 등은 논의를 풍부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논쟁을 복잡하게 한다. 자크 데리다의 저술에 가까이 근접하고, 가장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두사람의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과 베르나르 추미는 심포지움에 이론적이고, 특수한 논리적 체계를 제공했다.

A.D.는 이 특집을 통해 그들의 작품과 여러 모습을 부각시킨 첫 잡지 중의 하나다.

아이젠만은 말하기를 디컨스트럭션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순수이론적이며 어려운 것이라 했다. 인간은

디컨스트럭션을 통해 400년 동안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탐구하여 왔으며, 지금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상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보았다. 이 말의 뜻은 서양인은 철학적 태도로서 그동안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을 극복하여 왔다. 여기서 400년 이란 기간은 데카르트 이래의 합리적 과학적 사고태도를 지닌 기간을 말한다. 자연을 극복하였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에 대항되는 개념-자연’과의 사이에 투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Nature) 이란 동양인의 견해로서 ‘스스로 그러한 바’라 생각되는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데, 자연에 대해 이겼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폭넓게 바라보면 동서양의 차이에 지금의 디컨스트럭션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디컨스트럭션은 ‘텍스트로 남아 있는 상태’(Textuality)를 해체하며 체계를 바꾸어, 저항하고 있는 억제된 것을 밝히기 위해, “사이의 문제”(The Between)—아름다움 속에 내제된 추함, 합리성 속에 내제된 비합리성—를 추구하며, 그리하여 그는 지금 진실로 그가 담당하는 해체주의자들에게서 보게되는, “사이의 문제”를 깨고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보며 어려움을 부각하여, 회화에서 에르바르트 몽크가 한 방법과 같은, 소외된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창조하는 것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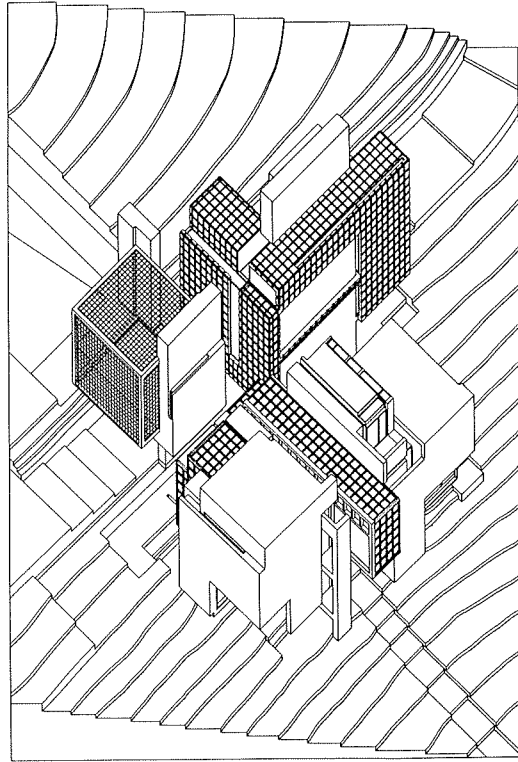
아이젠만은 개리나 사이트(SITE)처럼 부수는 건축가들은 진정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프랑스철학자 데리다에 의해 이론화된 ‘디컨스트럭션’은 텍스트의 ‘의미’가 그 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독서의 방법을 그려, 어떤 종류의 고정된 해석도 파헤치기 위해 문학평론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텍스트들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이나 건축에서도 적용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단지 설명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건축체계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건축인 모임에서 이러한 도전적 이념에 대해, 피터 아이젠만과 베르나르 추미는 마크 위글러와 동의했지만, 그러나 두사람은 非-데리다언계로서의, 위글러의 해체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위글러의 개념은 건축에서 아방가르드도 아니며, 전통적인 건축개념을 혼란케 하는, 조화에 도전하고, 억압되어 있는 불순함과 내부의 폭력을 그려낸다고 아이젠만은 생각했다.

아이디어들은 서로 혼합되지만, 위글러는 ‘텍스츄얼 건축’(Textual Architecture)—아이젠만이 지은 익살스러운 명칭인데, 신택스나 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한 용어이다—을 단지 디컨스트럭션을 다른 목표를 지니는 것으로 묘사했지만, 데리다를 따르는

⑦ 베르나르 추미-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 라 빌레뜨단지 투시도
 ⑧ 홍콩 피크-저하 하이드 라 빌레뜨 계획안-저하 하이드



9

- 9 계획안H-피터 아이젠만
- 10 시로잡힌 지구의 도시-렘 클하스

주

- 1) 크리스토퍼 노리스, 『디컨스트럭션』, 서울, 도서출판 인동, 1986. 4장; “니체: 철학과 탈구축”.
- 2) Jacque Derriada 著, Barbara Johnson 譯, 『Dissem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역사서문.
- 3) Jacque Derriada 著, 알렉, 역사서문.
- 4) 권택영, 최동호번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세문사, 1985. p. 83~84. 이상섭 著,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민음사, 1978. p. 63~64.
- 5) 세계건축가4, 『Zaha M. Hadid』, 건우사, p. 113.
- 6) 백낙청 著, 『민족문화와 세계문화II』, 창비신서 62,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p. 397.
- 7) 알렉, p. 398. 주8.
- 8) 알렉, p. 399.
- 9) 권택영, 최동호번역, 『문학용어비평사전』, pp. 171~173.
- 10) 백낙청 著, 알렉, p. 403.
- 11) 알렉, p. 402.
- 12) Charles Jencks 著,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2판), p. 6~8. 송중석 監修,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4판), 서문, p. 6.

믿음으로, 아카데미 심포지움을 시작하면서 인터뷰에서 데리다가 원칙들을 표현하기는,

“시작에서 부터, 디컨스트럭션은 철학, 문학, 회화,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젠만은 언어보다 건축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⁹⁾

철학적, 심리적, 영화적인 모든 상징들이 적용된 라 빌레뜨공원을 통해 특출하게 돋보인 베르나르 추미는 이러한 다학문적인 주제인 디컨스트럭션을 실현했다. 추미는 디컨스트럭션은 건축운동이나 양식이 아니라, “건축의 한계를 해체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이라고 했다. 건축은 순간적이어서, 새로운 時空間 개념—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새로운 통신, 우주여행의 수단인—은 건축의 영원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추미의 목표는 서양건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찬양되어 온 도시의 상징(Icon)과 이념을 변화시켜, 우리가 사는 도시가 사건들로 기록이 된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였다.

라 빌레뜨 공원은 가장 대중적인 시도인데, 복합적인 건축물을 실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명상(冥想)과 중복된 형태를 통해, 서양건축의 이념인 질서(Hierarchy), 기능(Function), 오더(Order)등의 원칙을 뒤따라지 않으면서 이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참여한 모든 건축가들, 특히 자하 하디드는 디컨스트럭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는데, 대부분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와 묵시록(默示錄)의 감각이 있다고 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과 대학살의 기억은 우리 가정에까지 해체주의를 파급시켰다. 데리다의 디컨스트럭션의 개념은 1920년대의 모면과 같은 범주를 벗어나므로, 역사주의의 보증은 없지만,

역사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므로, 모던이라 할 수 있다고 A. D.는 보고한다.

심포지움을 통해 디컨스트럭션의 논쟁은 시의적절하고 생동감있는 주제였음이 밝혀졌다. 크리스토퍼 노리스는 이해할 만한 개념으로 드러난 différence 같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했는데, 데리다 자신은 difference로 부터 떨어진 것 같다.

건축가들이 자의적으로 주제를 택했던 것과 같이, 기술이나 전지도면을 통해 논쟁이 있는지 몇년후에, 이 철학적 선언은 최종적으로 이론적인 실무자조차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할 기회를 주었다.

A. D.의 특집 주제는 주요건축가를 부각시키고 심포지움에서 부각된 주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흥미와 접근이 특정한 측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특히 도전의 태도에서 그러한 점을 부각했다. 건축운동의 하나로 집약되지는 않는다는데 모두 동의했지만, 건축심포지움은 회의가 일어나는 생각 속에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건축과 철학에 대해 데리다는 노리스와의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베르나르 추미가 데리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날 건축가들 중 당신의 저작 전부 또는 일부에 흥미를 느끼거나, 라빌레뜨 프로젝트에 관한 글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 데리다는 추미를 알지 못했으나, 추미는 라 빌레뜨의 모든 계획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데리다는 “왜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그 후 데리다는 추미와 만나게 되었고, 계획안을 보았으며, 추미와 아이젠만의 텍스트(Texts) 일부를 읽었다. 그리고 뉴욕에서 아이젠만을 여러번 만났다. 같이 작업하고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협동작업을 했으며, 이러한 협동작업의 결과로 책이 나왔다.

데리다는 아이젠만을 공동작업을 제안했는데,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비평과 설계를 각자 진행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의 티메우스(Timaeus)”—왜냐하면 공간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에 대한 데리다의 최근작을 텍스트로 제안했던 것이다. 즉, 플라톤의 티메우스에 대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는 방식에 문제를 느껴, 이를 토대로 데리다는 글을 썼고, 이것을 아이젠만에게 주었으며, 아이젠만은 이를 토대로 그의 방법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데리다의 텍스트를 참고하기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설계했다. 데리다는 이를 진정한 협동으로 보았다. 이작품은 18개월만에 완성되었다.

건축가들과 교류를 한, 데리다는 흔히 “해체주의적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러한 건축가들은 전통의 핵심적 내용을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다른 것—말하자면

유용성, 아름다움, 생활 즉, 'Habite', 등등의 가치-에 종속된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 흥미를 느꼈다. 건축을 쓸모 없거나, 추하거나, 살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쓸모 없거나, 추하거나, 살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로부터 유래된 목표나 건축외적 목적으로부터 건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고 근본적인 건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다른 전달수단과, 다른 예술과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

7. 건축과 우리의 과제

건축에서는 무엇이 텍스트인가?

문학에서는 시, 소설 등의 작품이 텍스트라면,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해 참고하거나, 문학기론의 전개를 위해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읽는 행위는 독서이다. 독서를 통해 어떤 의미를 파악했다면 그것은 해석이 된다. 전통적으로 문학에서의, "해석의 과정은 어떤 텍스트의 풍요하고 때로는 비밀스러운 실체로부터 주제들을 재구축해 내며, 단어와 이미지들의 흐름이 허락하는 한 많은 느낌과 의미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해석은 흩어진 단락들을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조합함으로써 텍스트상의 난점들을 해결한다. 해석작업이 끝나갈 무렵이면 모든 요소들은 한데 묶이고, 통합되기 때문에 텍스트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해진다."²⁵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 본다면, 건축에서 건축물이 텍스트라면, 그것은 생활을 통해 느끼는, 즉 읽는 행위는 독서이다. 독서를 통해 어떤 의미를 파악했다면 그것은 해석이 된다.

여기서 생활을 통해 아는 것과 이것을 정식 독서를 통해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의 차이는 생활인과 건축학자의 차이가 아닐까. 문학에서의 말과 글이 건축에서는 무엇으로 비유되어 설명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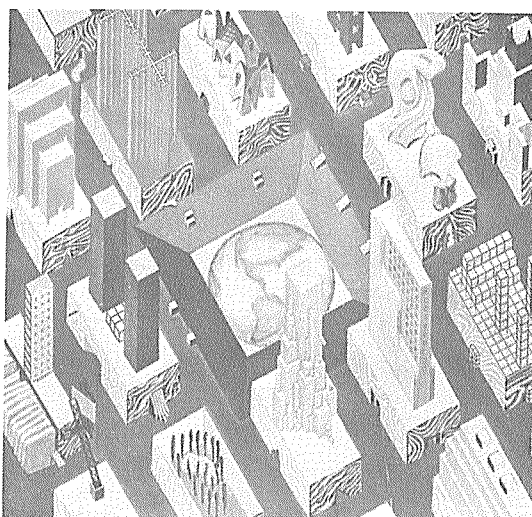
아직 폭넓게 확산된 움직임이 아니라서 해체주의로 부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문학에서 해체비평으로 해석하듯이, 건축평론에만 필요한 것은 아님이 분명한 이상, 해체주의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해체주의는, 구조가 텍스트의 내부에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는가를, 객관적으로 텍스트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가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기를 거부하는 점에서 탈구조주의임을 자인하고 있다.²⁶

우리는 해체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데리다가 프랑스에서 공부했지만 알제리출신임을 안다. A.D.에서의 해체주의 특집에 실린, 여러 건축가들의 면모를 보면, 베르나르 추미(Bernard Jp. Tschumi,

1944년)는 스위스 출신이며, 홍콩피크의 자하 하디드(Zaha M. Hadid, 1950년)가 이라크, 바그다드출신이다. OMA의 렘 쿨하스(Rem Koolhaas, 1944년)는 네델란드, 암스텔담 출신이며, 엘리아 켈레스(Elia Zenghelis, 1938년)는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다. 크리스티앙 드 포참팍(Christian de Portzamparc, 1944년)은 모로코, 카사블랑카이며, 에밀리오 암바스(Emilio Ambasz, 1943년)는 네델란드계 아르헨티나태생이며, 프랑크 게리(Frank O. Gehry, 1929년)는 캐나다, 토론토출신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외 특집에는 피터 아이젠만, 쿠프 힘벨부라우, 찰스 스, SITE 등도 있다. 여기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제3세계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철학자에게서 서구(영미)사상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비롯되어, 다양한 지역에서의 발언이 두드러 지는 점이다.

한국현실에서의 설계와 이를 설명해야 할 이론과, 프랑스 철학자로부터 시작된 해체주의를 모습과, 해체주의자들의 건축의 모습과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괴리를 어떻게 필자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찰스 쟁스는 문학을 전공한 건축평론가이다. 이전에 수학을 전공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도 있었는가? 앞으로 사이버네틱을 전공한 이도 건축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서 이시간에 마리오 보타가 생각나는지. 건축은 종합학문이라는 논리속에 우리는 숨어 있었는지 모른다. 종합을 위해 우리가



⑩ 모든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해도, 그것이 이해되기 어렵거나 또는 이해한다해도 그 건축적 적용이 쉽지 않은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축하기 전에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구축했던 것은? 우리가 구축한 것은? 우리가 해체해야 할 것은?

- 13) 빈센트 B. 라이치폴, 권택영 옮김,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p. 20~27.
- 14) 테리 이글턴, 김명환외공역, 『문학이론입문』, 장비신서74, 서울, 창작사, 1986. p. 158.
- 15) 빈센트 B. 라이치폴, 권택영 옮김, 앞책, p. 47.
- 16) 테리 이글턴, 김명환외공역, 앞책, p. 163.
- 17) 앞책, p. 165.
- 18) Architectural Design, 『Deconstruction in Architecture』, Andrew Benjamin, "Derrida, Architecture and Philosophy", pp. 8~11.
- 19) 데카르트, 최영봉역, 『方法序說』, 서울 창산문화사, 1974. pp. 12~13.
- 20) 크리스토퍼 노리스는 영국, 웨일즈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킨다.
- 21) A. D., 『Deconstruction in Architecture』, p. 7. "Deconstruction at the Tate Gallery"
- 22) A. D. 1988 1/2, 『Deconstruction II』, p. 7~11 "JACQUES DERRIDA in Discussion with Christopher Norris."
- 23) 빈센트 B. 라이치폴, 권택영외공역, 앞책, 서문, p. 7.
- 24) 크리스토퍼 노리스, 『디컨스트럭션』, p. 16.